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레슬리 드 차베즈, 《뜻이 이루어지소서》



레슬리 드 차베즈, 《뜻이 이루어지소서》(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참여작가 : 레슬리 드 차베즈(b. 1978)
전시제목 : 《뜻이 이루어지소서》
전시일정 : 2026년 5월 1일(금) – 6월 20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을곡로 85) 3F, 4F
전시작품 : 회화 8점, 영상 2점, 설치 5점

[작품 이미지 및 전시전경]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66FvBfqgSmnAQEfZhMRZ8IkFSaZwgkv?usp=drive_link

[문의]

박미란 팀장, M. +82(0)10-6768-8812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황보영 담당, M. +82(0)10-7297-3597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3
	3. 작품소개	-----	4-7
	4. 전시전경	-----	8
	5. 작가소개	-----	9
	6. 작가약력	-----	10-13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6년 5월 1일(금)부터 6월 20일(토)까지 레슬리 드 차베즈(b. 1978) 개인전 《뜻이 이루어지소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16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개최된 레슬리 드 차베즈 개인전 《이성이 잠들 때》 이후 한국에서 10년 만에 선보이는 개인전으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상, 설치 등의 다양한 장르를 취한 15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레슬리 드 차베즈는 자신의 모국인 필리핀이 겪어온 문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 동시대의 삶 그리고 부조리한 정치와 종교 등 복합적인 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다루며 당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다. 그는 시대를 상징하는 도상이나 글, 기호들을 해체하고, 신랄한 비유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동시대 사회적, 시대적 징후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또한 예술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파급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이를 토대로 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3층, 4층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늘날 필리핀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문화, 사회, 정치적 환경을 형성하는 여러 개념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그 중 신앙이 어떻게 지배와 통제, 복종과 순응, 그리고 수용과 체념이라는 관념을 투영하고 해석하며, 때로는 오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전시는 개인과 사회가 신앙과 권위 속에서도 끝내 잃지 않으려는 개인적, 집단적 주체성을 어떻게 끊임없이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2. 전시주제

뜻이 이루어지소서와 “바할라 나”

필리핀 문화에 깊이 자리한 “바할라 나(Bahala Na)”라는 표현은 필리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이를 직역하면 “될 대로 되라” 혹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표현은 운명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내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오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체념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전시의 제목인 “뜻이 이루어지소서(Thy will be done)”라는 표현은 “바할라 나”와 유사해 보이지만, 신의 뜻에 대한 복종과 순응에 더 큰 무게를 둔 표현이다. 이는 필리핀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주기도문에서 비롯한 이 문장은 단순히 불확실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연이나 신에 의해 이미 설계된 목적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바할라 나”가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면, “뜻이 이루어지소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 어떤 초월적 질서에 대한 신뢰와 위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표현 모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큰 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비록 개별적인 삶의 양태는 다양할지라도, 이 표현들은 불확실한 현실을 견뎌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특유의 수용적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 서사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며 회복력을 찾아가는 그들만의 고유한 생존 방식이기도 함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막연한 미래에 맞서는 심리적, 영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동시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어주기도 한다. 레슬리 드 차베즈는 이 표현을 역설적으로 차용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사회 시스템이 부추기는 집단적 욕망 사이의 모순에 주목한다. 신앙과 권위라는 거대한 체제 아래 놓인 개인이 각자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타협하고 때로는 저항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며, 결국 외부의 규율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자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신념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결국은 잃지 않아야 할 개인적이고도 집단적인 자아의 실존적 방식을 성찰하게 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필리핀은 모순과 역설이 뒤섞인 만화경과 같다. 오늘날 필리핀에서 지속되는 사회, 문화적 상황은 오랜 식민 지배와 종속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 3 세계적 생존과 자기결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사투이기도 하다. 필리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가톨릭 문화와 할리우드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끝없이 모방해왔다. 열대 기후라는 환경적 요인과 맞물린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시간 관념을 식민화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은 대개 영원히 열려 있고 유연하며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고단하고 시련 가득한 일상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좋은 환경이 된다.”

- 작가 노트 중에서 발췌

3.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및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Leslie de Chavez.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대표이미지



〈시에스타 1번: 세션들(혹은 일반적인 수단이나 절차 없이 고질적인 문화적 난제를 비해결 상태로 되돌리는 법)〉

2023

캔버스에 유채, 금박

190 x 230 cm

3층 전시장에 선보이는 〈시에스타 1번: 세션들〉(2023)은 필리핀 식민 지배기 교회의 종교 회화와 장식적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동시대의 세속적 풍경과 결합한 복합적인 이미지로 구성된 작품이다. 화면의 중심에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채찍질 당한 후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리스도교 영혼(Christ after the Flagellation contemplated by the Christian Soul)〉(1599-1660)에서 차용된 그리스도의 도상이 등장한다. 레슬리는 이 성스러운 고난의 장면을 세 명의 타투이스트가 그리스도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파격적인 행위로 재구성한다. 그 위로는 필리핀 노래방의 악명 높은 인기곡이자, 지나친 열창이 때로 폭력 사건까지 유발하며 기이한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프랭크 시나트라 의 '마이웨이(My Way)' 가사가 중세 필사본 양식을 빌려 금박 위에 겹쳐져 있다. 그의 회화는 특유의 명암법을 활용해 빛과 어둠을 결합하고, 금박 아래 글자를 숨긴다. 이는 성스러움과 세속성, 숭고함과 폭력성이 공존하는 필리핀의 모순된 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면서도 동시에 은폐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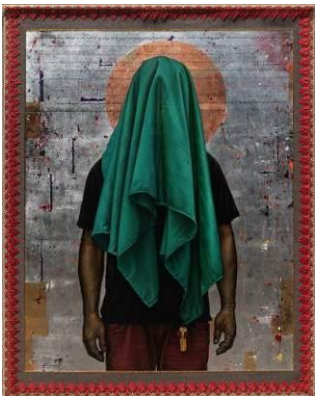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필리핀 사람들의 짧은 휴식, 일명 '시에스타(Siesta)'의 이면을 다룬다. 레슬리는 이 휴식 시간이 온전한 쉼이라기보다,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 소비되고 이용당하며 사실상 '식민화'된 시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시간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즐기는 음주, 흡연, 가라오케, 게임, 소셜 미디어와 같은 각종 '세션(sessions)'들은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즐거운 도피처가 된다. 레슬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한다. 지배적인 외부 문화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마음껏 즐기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문화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의도치 않은 저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실 부정과 자발적 무지라는 필리핀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안에서 작동하는 기묘한 해방감을 은유적으로 그려낸다.



〈가려진 II〉
2026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장식
재료, 천, 금속박
153 x 118.5 cm

또 다른 출품작 <가려진>(2026) 연작은 다양한 색의 천으로 덮인 인물의 형상이 화면 위에 서 있는 작품으로, 드러남과 가림에 주목한다. 작품의 외연을 감싼 화려한 트리밍(trimming)과 배경의 금속박은 캔버스 위의 유채, 아크릴릭, 실제 천의 물성과 겹쳐지며 자아의 복잡한 단면들을 드러낸다. 이러한 장식적 요소들은 가톨릭 도상의 화려함을 재현하는 한편, 거대 체제 안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르는 심리적 가림막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한 인간의 자아는 명확하게 규정되기보다, 가려지고 겹쳐지는 상태 속에서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 우리의 내면은 스스로 선택한 신념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은 욕망이 함께 얽히며 형성된다. 레슬리는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해당 연작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감춰진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의미를 축적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려진 III〉
2026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장식
재료, 천, 금속박
153 x 118.5 cm

“침묵은 하나의 언어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다른 존재의 방식이 된다. 이 과정에서 평범한 개인은 각자의 층위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존재가 된다. 그는 자신을 가리는 동시에, 아직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감싼다. 베일 아래에는 신앙과 운명이 교차하는 연약한 지점들이 자리한다.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으로 간직된다.”

- 작가 노트 중에서 발췌

<인간의 탐욕에 조금이라도 내어줄 만큼 이 세계에는 고통도 쾌락도 충분하지 않다>(2022)는 반짝이는 금속박 배경과 짐승의 형상을 대비시키며 성스러움과 속됨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구한다. 그는 서양 종교 회화에서 주로 쓰였던 채색 필사본의 화려한 장식성과 키아로스쿠로 (Chiaroscuro)의 극적인 명암을 활용해, 화면 속 짐승들이 연출하는 폭력적인 장면과 화면의 탐미적인 조형성 사이에 강렬한 이질감을 보여준다.



〈인간의 탐욕에 조금이라도 내어줄 만큼 이 세계에는 고통도 쾌락도 충분하지 않다〉
2022
종이에 유채, 아크릴릭,
스프레이 페인트, 종이,
데칼, 금속박
228 x 186 cm

여기서 짐승의 형상은 예속과 권력 다툼, 그리고 억압에 관한 비유적 장치로 작동하며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만성적인 사회, 정치적 상황을 투영한다. 특히 그가 활용하는 서구 전통 회화의 글레이징(Glazing) 기법은 필리핀 사회에 남겨져 있는 식민화의 '얼룩'을 상징하는 은유로 쓰인다. 그는 이 기법을 활용하여 화면 위에 재료를 층층이 쌓아 표현함으로써,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같은 역사적 굴레에 의해 가속화된 인간의 동물적 욕망,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집단적 경험의 보편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시각화한다

3층 전시장에 선보이는 영상 작품 <복되도다>(2026)[별첨1]는 필리핀어로 낭독되는 작가의 시와 영문 자막, 그리고 필리핀 성금요일(Good Friday)의 축제 행렬 풍경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성금요일은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날을 기리는 날이다. 화면은 등에 예수의 형상이 그려진 한 남자의 뒤를 따라가며, 4월의 붉은 무더위가 내려앉은 필리핀의 거대한 복판을 천천히 비춘다. 레슬리 드 차베즈는 성스러운 기도와 세속적인 일상의 소품들이 뒤섞인 이 풍경을 통해, 필리핀 사회를 지탱하는 신앙의 양면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복되도다>
2026
단채널 영상
5'00"



<군중 앞에 드러난 그리스도교 처녀들로 재현된 OG들 (F.R. 이달고를 바탕으로)>
2024
아카이벌 종이에 포토프린트, 네온 조명
188 x 427 cm (각 47 x 30.5 cm, 총 56점)

창문 격자 구조를 통해 성스러움과 속됨의 경계를 엿보게 하는 <군중 앞에 드러난 그리스도교 처녀들로 재현된 OG들>(2024)은 일종의 관음적인 시선을 유도한다.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장면은 필리핀 라구나(Laguna)의 한 목각 작업장에서 레슬리 드 차베즈가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익숙한 화면이 사라지고 옷이 벗겨진 조각상들이 나열되어 있다. 화면은 더 이상 엄숙한 종교적 순간이라기보다, 덥고 습한 열대 기후 아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필리핀 남성들의 소박한 술자리 같은 일상적 모임을 떠올리게 한다.

제목의 'OG(Original Gangsters)'라는 표현은 성스러운 도상에 유머와 약간의 불경함을 더하며,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볍게 비튼다. '최후의 만찬' 장면은 가톨릭 교회와 필리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하면서도 경외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새로운 맥락 속에 놓이며, 신앙, 재현, 그리고 성스러운 이미지가 예상치 못한 틀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작품의 제목은 19세기 필리핀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펠릭스 레수렉시온 이달고의 1884년 작품 <군중 앞에 드러난 기독교 처녀들(The Christian Virgins Exposed to the Populace)>에서 영감을 받았다. 원작이 로마 남성들 앞에서 조롱 당하는 여성들을 통해 식민 폭력과 존엄성의 훼손을 은유적으로 고발했다면, 레슬리 드 차베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대물림된 권력의 상징 자체로 돌린다. 그는 유머와 미러링(mirroring)을 단순한 상징적인 도상을 조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맥락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상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며, 그 안에서 존엄성 또한 스스로의 방식으로 다시 구성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작품은 성스러운 도상의 권위를 허물고, 그것을 지극히 인간적이며 유희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다.

4.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제공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레슬리 드 차베즈, 《뜻이 이루어지소서》(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6) 전시전경

5. 작가소개

나의 작업 세계는 역사, 식민주의, 종교, 제국주의, 잘못된 교육, 권력 투쟁, 동시대 문화, 정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같이 필리핀 사회를 관통하는 다양한 문제를 고찰하며, 이를 다채로운 예술 형식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동시대 사회적 담론을 재검토하며, 내면적 성찰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필리핀인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현실의 진실을 포착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병폐로 인해 반복되는 희생에 대해 예술로 응답하는 행위, 나는 그것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 레슬리 드 차베즈



레슬리 드 차베즈 작가 프로필 이미지
[아라리오갤러리 및 작가 제공]

레슬리 드 차베즈는 197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나 현재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필리핀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2026; 2016), 가자갤러리 싱가포르(싱가폴, 2025), 실버렌즈 갤러리(싱가폴, 2021; 2013),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상하이, 중국, 2018), 리버풀 호프 대학(리버풀, 영국, 2015), 아방테이 컨템포러리(취리히, 스위스, 2008)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그 외에도 가자갤러리 욕야카르타(욕야카르타, 인도네시아, 2025), 다누비아나 미술관(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2019), 제주 현대미술관(제주, 한국, 2015),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서울, 한국, 2014), 로페즈 메모리얼 뮤지엄(마닐라, 필리핀, 2014), 싱가포르미술관(싱가폴, 2013; 2012)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는 2014년과 2010년 아테네오 아트 어워즈를 두 차례 수상했다. 현재 필리핀 루크반에 위치한 비영리 독립 예술 공간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Project Space Pilipinas)의 설립자이자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6. 작가약력

레슬리 드 차베즈

1978년 필리핀 마닐라 출생

필리핀 타아바스와 루크반(케손), 메트로 마닐라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1998 필리핀대학교 회화과 학사

주요 개인전

- 2026 뜻이 이루어지소서,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땅에 입맞춤(Halik sa Lupa), 가자갤러리 마닐라, 마닐라, 필리핀
- 2025 땅에 입맞춤(Halik sa Lupa), 가자갤러리 싱가포르, 싱가포르
- 2024 유다가 그리스도로부터 빵을 받을 때, 작은 검은 악마가 그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드러난다, MO_Space
갤러리, BGC 타기그 시티, 필리핀
플라시보 회화, MO_Space 갤러리, BGC 타기그 시티, 필리핀
- 2021 발코니 위의 외로운 파수꾼, 실버렌즈 갤러리, 마카티 시티, 필리핀
- 2018 공중에 누워(Higa sa Hangin), 피날레 아트 파일, 마카티 시티, 필리핀
동굴의 우화,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 2017 SaLang #1: 공예-채굴-폐기,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 2016 여성이 잠들 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15 영항 아래에서,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펼쳐지는 만남, 코너스톤 갤러리, 리버풀 호프 대학교, 리버풀, 영국
- 2013 이름 없는 존재, 실버렌즈 갤러리, 길만 바락스, 싱가포르
- 2011 신은 바쁘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10 한숨(Buntong Hininga), 실버렌즈 갤러리,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2008 바나나 리퍼블릭, 아반테이 컨템포러리, 취리히, 스위스
- 2007 붉은 눈의 형제,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레슬리 드 차베즈, 아라리오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 2006 나를 잊지 말아요,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레지던시, 고양, 한국
- 2004 실망한 산 이시드로, 파히야스 페스티벌, 루크반, 케손, 필리핀
- 2003 얼룩(Bahid), 쿨라이 디와 필리핀 현대미술 갤러리, 파라냐케,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주요 단체전

- 2026 잘 지내시나요?(Kumusta Po Kayo?), 라 카사 엔센디다, 마드리드, 스페인
치유(Pangamot), 발라이 수에뇨, 하로, 일로일로 시티, 필리핀
- 2025 잠불랏 3(Zambulat 3), 카사 산 미겔, 잠발레스, 필리핀

- 공상적 담화: 현실의 환상, 가자갤러리, 마닐라, 필리핀
 바일루하나이 비엔날레: 순환과 자전거, 에스키니타 아트 팜, 에스키니타 아트 팜, 타나우안, 바탕가스, 필리핀
 센틀 비엔날레: 우리의 친구들에게, A+ 워크스 오브 아트,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유행/소문(Usong),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유희 / 광기: 탈라안요, 가자 갤러리,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2024 루네산(Lunesan),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함께 모임(Pagtilipon-Tipon), 오렌지 프로젝트, 바콜로드시, 필리핀
 소유-가지기와 붙잡기, 가자갤러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3 공간 속의 종이, 종이 속의 공간,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체현된 것들, 더 드로잉 룸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 마카티시, 필리핀
 초상 속의 초상 전, MO_Space 갤러리, BGC 타기그시, 필리핀
 과잉 상태, 가자갤러리, 싱가포르
 섬의 시간, 제인 롬바드 갤러리, 뉴욕, 미국
 2022 구멍(Orifice),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물질의 수수께끼, 갤러리아 두에밀라, 마닐라, 필리핀
 내 손을 잡아요, 내가 과거와 미래를 보여줄게요, 알바 갤러리, 비엔나, 오스트리아
 2021 지금까지 IV: 애가,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폭풍 이후: 필리핀 작가 5인, 미즈마 갤러리, 싱가포르
 존재의 유통기한, 모노8 갤러리, 산후안,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20 격리된 삶,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준비되었지만 연기되거나 취소됨, A+ 워크스 오브 아트,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태평양 횡단: 삼각측량 III - 마닐라에서 온 기록들,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19 노란 모호성, 아테네오 아트 갤러리,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멀리 있지만 묘하게 익숙한, 다누비아나 뮐렌스틴 미술관, 슬로바키아
 +63 / +62, 실버렌즈 갤러리,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18 한때 나는 비전을 가졌었다, 어둠의 왼손, MO_Space 갤러리, BGC 타기그시, 필리핀
 SaLang, 웨스트 갤러리, 웨스트 애비뉴, 케손, 필리핀
 2017 아시아의 목소리,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2016 거리와 산 사이에서: 필리핀 작가 4인,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2015 페이퍼뷰스 15: 빠른 순환,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문제적 동시대, 현대미술디자인미술관(St. Benilde), 마닐라, 필리핀
 아시아, 아시아를 이야기하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한국
 너는 너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이퀘이터 아트 프로젝트, 싱가포르
 펼쳐지는 만남, 코너스톤 갤러리, 리버풀 호프 대학교, 리버풀, 영국
 2014 맥박,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리얼리?,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서울, 한국
 페이퍼뷰스 14: 내재성에 대하여,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 다중 언어, 실버렌즈 갤러리,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복잡함, 로페즈 뮤지엄 앤 라이브러리, 파시그,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피날레 아트 파일,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동시성, 웨스트 갤러리,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13 무작위적 무의미 없음, 보스턴 갤러리,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싱가포르 비엔날레 2013: 세계가 변한다면,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싱가포르
 2012 파노라마: 동시대 아시아의 최근 미술,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 싱가포르
 아티스트 워드 아라리오 3, 아라리오갤러리 청담, 서울, 한국
 2011 룬트강 2011, 라이프치히 인터내셔널 아트 프로그램, 라이프치히, 독일
 셀프 카메라: 현대적 자아의 재배치, 창원아시아미술제, 한국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유청코 뮤지엄,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10 군도의 불빛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난징 비엔날레, 난징 미술관, 난징, 중국
 레인보우 아시아,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컬렉션 쇼 2010,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리플렉션, 부평아트센터, 인천, 한국
 아티스트 워드 아라리오,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2009 우리는 우리의 말을 했다, 필리핀 문화센터, 파사이,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08 제3회 난징 트리엔날레, 난징, 중국
 2007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포천, 한국
 2006 물 속의 비키니,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2005 벳푸 아시아 현대미술 비엔날레, 벳푸 미술관, 벳푸, 일본
 2003 도시화(Urbanisasyon), 클라이 디와 필리핀 현대미술 갤러리, 파라냐케,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결속(Buklod), 클라이 디와 필리핀 현대미술 갤러리, 파라냐케,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2002 최근 작업, 클라이 디와 필리핀 현대미술 갤러리, 파라냐케,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표면, 아얌라 뮤지엄,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주요 프로젝트

- 2026 큐레이터, 양보의 리듬 속으로 떨어지다: Guenivere Decena 개인전, 오렌지 프로젝트, 아트 페어 필리핀 2026, 마카티, 필리핀
 2025 큐레이터, 유희 / 광기, 가자갤러리,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2024 큐레이터, 함께 모임, 오렌지 프로젝트, 바콜로드시, 필리핀
 2015 디렉터, 제1회 루크반 어셈블리: 투자,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2014 큐레이터, 페이퍼부스 14: 내재성에 대하여,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큐레이터, 다중 언어, 실버렌즈 갤러리, 마카티시, 필리핀
 큐레이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피날레 아트 파일, 마카티시, 필리핀
 2013 협업, 동남아시아 미술 그룹 교류 레지던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욱야카르타, 인도네시아;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2012 협업, 동남아시아 미술 그룹 교류 레지던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옥야카르타, 인도네시아;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2011 프로젝트 매니저,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유청코 뮤지엄,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2010 협업, 석수 아트 프로젝트, 서플리먼트 스페이스 스톤 앤 워터, 안양,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 리플렉션, 부평아트센터, 인천, 한국
- 2009 프로젝트 매니저, 플라스틱 신드롬, 아티스트 교류 및 전시, 아트 스페이스 플라스틱, 인천, 한국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아트라이앵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2008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텡가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최근 회화, 리버풀, 영국
- 2007 디렉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필리피나스, 루크반, 케손, 필리핀
- 2005 공동 큐레이터, 제1회 두마게테 오픈 비엔날레 테라코타 아트 페스티벌, 필리핀
- 2004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부적의 기억: Santiago Bose의 작업, 필리핀
- 2003 큐레이터, 도시화(Urbanisasyon), 콜라이 디와 필리핀 현대미술 갤러리, 파라냐케,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수상 및 레지던시

- 2015 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레지던시 지원 프로그램, 리버풀 호프 대학교, 리버풀, 영국
- 2014 Fernando Zobel 시각예술상 수상, 아테네오 아트 갤러리,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학교,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2011 라이프치히 인터내셔널 아트 프로그램, 라이프치히, 독일
- 2010 괴테 인스티튜트, 트래블 그랜트(Art Forum 10), 베를린, 독일
아테네오 아트 어워드, Shattering States 수상, 아테네오 아트 갤러리,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케손시,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2007 네오-이머징 아티스트 레지던시, 당산 스튜디오, 서울, 한국
- 2005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IASK), 고양 미술 스튜디오, 고양, 한국
벳푸 아시아 비엔날레 최우수상, 벳푸미술관, 벳푸, 일본
- 2003 메트로뱅크 재단 젊은 작가 회화 공모전 2등상, 메트로뱅크 재단, 마카티,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1999 오블레시네 영화-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가작상, 필리핀대학교,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제1회 영화-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3등상, 필리핀대학교 총장 문화예술위원회, 필리핀대학교,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 1998 UP 총장 문화예술위원회, 최우수 학생 작가상, 필리핀대학교,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가와드 장관상(Gawad Chancellor), 전국대회 학생 성취상, 필리핀대학교, 케손, 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별첨1] 레슬리 드 차베즈의 시 「복되도다」

복되도다

레슬리 드 차베즈

그림자의 땀방울이 뒤섞이는 이 정화의 땅 위에서,
4월 3일 열한 시를 지나, 다섯 시를 넘기며 서서히 흘러갈 때,
만 명하고도 한 명의 영혼이 슬픔 속에 신음하며 끝없이 방황한다—
평범한 이들은 의심과 갈망을 품은 채 일상은 계속된다.

명해진 마음과 불안한 정신을 적시는 붉은 무더위 속에서,
약속된 위안은 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보다.
억지스러운 미소의 소란과 저항 속에서도,
그대는 물 한 방울로도 되살릴 수 없는 메마른 기억 위를 기어갈 뿐이다.

목소리를 잃은 사원, 그 벽을 뚫고 나오는 메아리 속에서,
믿는 자들의 영혼이 매달린다—비워지고, 닫히고, 선택조차 없이;
그들의 갈증은 희미해져 가는 눈물과 사랑의 희미한 빛을 어루만지며,
내세가 고통을 지니기를, 하늘로부터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며.

이 순간의 슬픔은 붙잡을 수 없는, 그러나 끈질긴 향으로 둘러싸여있고,
그들의 손에는 판싯(Pancit)¹, 장난감, 휴대폰, 풍선, 그리고 기도문이 들려 있다.
황폐와 적막으로 가득 차, 공허하고 귀먹은 웃음의 갈보리 언덕에서 거부된 채,
길을 잃은 까마귀들이 모여드는 콘크리트 들판 위에는 독이 기다린다.

뒤틀린 당신의 어깨 위에는 백 년의 세월을 버틴 빛의 무게가 무겁고,
태양 아래, 창백한 그림자가 피부 위에 영원한 자비를 새긴다;
그대의 움직임은 억눌린 채, 제물은 늘 부족하기만 하며,
신의 손길에 닿기 위한 희생만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피로에 지친 당신의 눈 속, 어둠의 깊이는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로 더듬듯 갈림길을 위태롭게 걷는 눈먼 영혼처럼;
그대처럼, 취기 어린 향기가 성금요일의 백색 의복을 물들이고,
모든 걸음은 끈적하게, 길 위에서 너의 근원의 재의 중심을 향해

¹ 필리핀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

ARARIO GALLERY SEOUL

Leslie de CHAVEZ

Thy Will Be Done



Installation view of Leslie de CHAVEZ: *Thy Will Be Don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Artist : Leslie de CHAVEZ (b. 1978, Philippines)
Title : *Thy Will Be Done*
Dates : 1 May – 20 Jun 2026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3F, 4F
Artworks : 15 Artworks in total (8 Paintings, 2 Video Works, and 5 Installations)

[Artwork images and Installation view]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66FvBfqgSmnAQEfZhMRZ8lkFSaZwgkv?usp=drive_link

[Inquiry]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Boyoung HWANG, Associate | E. boyoung.hwang@arariogallery.com

Table of Content	1. Exhibition Overview	-----	2
	2. Exhibition Theme	-----	2-3
	3. Artworks	-----	4-7
	4. Installation view	-----	8
	5. Artist Introduction	-----	9
	6. Artist CV	-----	10-13
	[Appendix 1] “Blessed Art Thou” by Leslie de CHAVEZ	-----	13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Thy Will Be Done*, a solo exhibition by Leslie de CHAVEZ (b. 1978), from May 1 (Fri) to June 20 (Sat), 2026. Ten years after his 2016 solo exhibition *When Reason Sleeps* at ARARIO GALLERY SEOUL, Leslie de CHAVEZ returns to Korea with the exhibition of approximately 15 works, spanning painting, video, and installation. Leslie de CHAVEZ has consistently explored contemporary issues by delving into the complex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his native Philippines—probing the history of cultural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life, and the absurdities of politics and religion. By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iconic images, texts, and symbols of the era through biting metaphors, he candidly reveals the social and temporal symptoms of our time. His practice continues to reflect a deep concern for the roles, functions, and ripple effects that art must perform within society.

Spanning the third and fourth floors of ARARIO GALLERY SEOUL, the exhibition brings together works that sit at the intersection of various concepts shaping today's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in the Philippines and beyond. In particular, the exhibition examines how faith functions as a medium that projects, interprets, and at times misreads notions of dominance, control, obedience, and conformity, as well as acceptance and resignation. Through this lens, the exhibition explores how individuals and society continuously negotiate and reconcile the personal and collective subjectivity they strive to maintain amidst the pressures of faith and authority.

2. Exhibition Theme

Thy Will Be Done and "Bahala Na"

The expression "Bahala Na," deeply rooted in Filipino culture, represents a universal mindset of the Filipino people. Literally translated as "come what may" or "whatever happens, happens," the phrase reflects an attitude of accepting fate. It signifies a willingness to embrace uncertainty after doing one's best, while simultaneously hinting at a form of resignation toward circumstances beyond individual control. The exhibition title, *Thy Will Be Done* may seem similar to "Bahala Na," but it carries a heavier emphasis on obedience and conformity to a divine will. This nuance is closely tied to the unique national identity of the Philippines, where over 90% of the population is Catholic. Derived from the Lord's Prayer, this phrase goes beyond merely accepting uncertain outcomes; it represents a profound trust and entrustment to an order or purpose already designed by a transcendent power.

Both expressions share a common ground in acknowledging human limitations and recognizing a force greater than oneself. Despite the diverse modes of individual life, these phrases encapsulate the characteristically receptive attitude of the Filipino people as they endure an uncertain reality and strive toward tomorrow. It is their unique mode of survival—a way to protect oneself and find resilience within a grand narrative that no individual can control. This mindset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and spiritual defense mechanism against an opaque future, while also serving as the driving force that compels humans to move forward despite uncertainty. Leslie de CHAVEZ paradoxically adopts these expressions to

highlight the contradictions between individual religious devotion and the collective desires fueled by social systems. He contemplates how individuals, placed under the massive structures of faith and authority, negotiate—and sometimes resist—to maintain their subjectivity. Ultimately, the artis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self in determining one's own life amidst external regulations. His works invite us to reflect on the existential modes of both personal and collective selves that we must never lose, even at the point where faith and reality collide.

“The Philippines is a kaleidoscope of inconsistencies and paradoxes. The persistent socio-cultural situation is a result of the country's protracted history of colonization and subjugation, and it is a constant struggle between third-world survival and self-determination. We Filipinos have embraced and practically endlessly emulated everything Catholic and Hollywood throughout our continuing past. All of these factors, along with the tropical environment, make the setting perfect for colonizing our perception of time, which is typically presented as being permanently open, flexible, and free. A wonderful circumstance to distract ourselves from the rigors and tribulations of our everyday lives.”

– Excerpt from the Artist's Note

3. Artworks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2026. Leslie de Chavez.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Featured Images



Siesta no.1: The Sessions (Or How to Unsolve a Chronic Cultural Dilemma Without the Usual Means or Processes)

2023

Oil, gold leaf on canvas

190 x 230 cm

Presented on the third floor, ***Siesta no. 1: Sessions*** (2023) is a complex composition that inherits the decorative aesthetics and religious iconography of the Philippine colonial church while intertwining them with contemporary secular landscapes. At the center of the canvas is an image of Christ appropriated from Diego Velázquez's *Christ after the Flagellation contemplated by the Christian Soul* (1599–1660). Leslie de CHAVEZ provocatively reimagines this scene of sacred suffering as an act where three tattooists engrave ink onto Christ's body. Overlaid on this scene, the lyrics to Frank Sinatra's "My Way"—a song of notorious popularity in Philippine karaoke that occasionally incites violence and carries a bizarre cultural symbolism—are inscribed in the style of medieval illuminated manuscripts upon gold leaf. Utilizing his characteristic chiaroscuro to blend light and shadow, the artist hides text beneath the gold, symbolizing the contradictory reality of the Philippines where the sacred and profane, the sublime and the violent, coexist—a state where truth is simultaneously revealed and concea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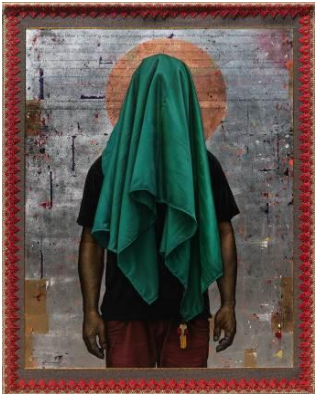
As suggested by the title, the work explores the hidden facets of the "Siesta," the brief rest period taken by Filipinos. De CHAVEZ notes that this interval is not a moment of pure rest but rather a "colonized" time, consumed and exploited by capital and power. The various "sessions" that many Filipinos engage in during this period—drinking, smoking, karaoke, gaming, and social media—serve as a pleasurable escape from the exhaustion of reality. Here, the artist identifies a compelling paradox: in the process of consuming and transforming dominant foreign cultures for their own enjoyment, an "unintended resistance" occurs, undermining the very authority of that culture. This work serves as a metaphor for the peculiar sense of liberation found within the contradictions of Philippine society—a space defined by both the denial of reality and a state of voluntary ignorance.



Shrouded II
2026
Oil, acrylic, trimmings, fabric,
metallic leaf on canvas
153 x 118.5 cm

Another featured work, *Shrouded* (2026) series depicts human figures covered in multi-colored cloths, focusing on the tension between revelation and concealment. The ornate trimming and metallic leaf overlap with the materiality of oil, acrylic, and actual fabric, revealing the complex layers of the self. While these decorative elements reproduce the splendor of Catholic iconography, they also symbolize the psychological veils that individuals wrap around themselves for protection within grand systems.

In this series, the human ego is not clearly defined but rather revealed through states of being shrouded and overlapped. Our inner selves are formed not only by chosen beliefs but also by the desires we wish to hide. Leslie manifests this dual structure, demonstrating that what is concealed does not disappear; instead, it accumulates meaning in silence, existing in an alternative form.



Shrouded III
2026
Oil, acrylic, trimmings, fabric,
metallic leaf on canvas
153 x 118.5 cm

"The quiet becomes a language, and the unseen a form of presence. In this, the ordinary person becomes a careful weaver of layers, wrapping the self not only to obscure, but to protect what is tenderly unresolved. Beneath these veils rest the fragile intersections of faith and fate—imperfect, uncertain, yet held as something precious."

– Excerpt from the Artist’s Note

There Is Not Enough Pain and Pleasure in the World to Permit Giving Any of It Away to the Greed of Mankind (2023) explores the delicate boundary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contrasting a shimmering metallic leaf background with the forms of beasts. By utilizing the ornate decorative qualities of illuminated manuscripts—traditionally found in Western religious painting—and the dramatic intensity of chiaroscuro, Leslie de CHAVEZ creates a powerful sense of heterogeneity.



There Is Not Enough Pain and Pleasure in the World to Permit Giving Any of It Away to the Greed of Mankind
2022
Oil, acrylic, spray paint,
paper, decal, metallic leaf on
paper
228 x 186 cm

This tension exists between the violent scenes enacted by the beasts and the aesthetic, seductive composition of the canvas, effectively revealing the bizarre cultural symbolism and contradictions within the work. In this work, the forms of the beasts operate as metaphorical devices for subjugation, power struggles, and oppression, reflecting the chron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faced by the world today. In particular, his use of the Western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 of glazing serves as a metaphor symbolizing the "stains" of colonization lingering within Philippine society. By layering materials on the canvas through this technique, Leslie de CHAVEZ visualize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imalistic desires—accelerated by historical fetters such as colonialism and imperialism—and the contrasting universality of collective experience.

Presented on the third floor, the video work *Blessed Art Thou* (2026) features the artist's poetry recited in Filipino with English subtitles, juxtaposed against scenes from a Good Friday procession in the Philippines. Good Friday is the Friday preceding Easter, commemorating the crucifixion and death of Jesus Christ. The camera follows a man with an image of Christ depicted on his back, slowly capturing the heart of a Philippine street settled under the crimson swelter of April. Through this landscape, where sacred prayers and contemporary secular objects are intertwined, Leslie de CHAVEZ candidly reveals the dual nature of faith that sustains Philippine society.



Blessed Art Thou

2026

Single channel video

5'00"



The OGs as Christian Virgins Exposed to the Populace (After F.R.Hidalgo)

2024

Photoprint on archival paper, neon light

188 x 427 cm (47 x 30.5 cm each, 56 frames)

Structured like a grid of windowpanes, the photograph offers a voyeuristic glimpse into the interplay between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OGs as Christian Virgins Exposed to the Populace* presents a staged reimagining of the Last Supper, complete with Jesus Christ and his disciples. Originally photographed by the artist in a carving center in Laguna, Philippines, the scene reveals a set of statues stripped of their garments and absent the familiar table arrangement. In this altered state, the composition takes on a different character—less a solemn biblical moment, and more akin to an ordinary gathering of Filipino men, reminiscent of a casual drinking session under the country's humid, tropical air.

The title *The OGs as Christian Virgins Exposed to the Populace*, (OG meaning “Original Gangsters”) introduces a layer of humor and irreverence, gently mocking this iconic image. Widely found in Catholic churches and Filipino homes, the scene of the Last Supper is both familiar and revered. Here, however, it is recontextualized—inviting reflection on devotion, representation, and the ways sacred imagery can shift in meaning when placed in unexpected frames.

The title also draws inspiration from *The Christian Virgins Exposed to the Populace* by Félix Resurrección Hidalgo. That 1884 painting depicts two young Christian women, partially unclothed, subjected to public ridicule by Roman men—a scene often read as an allegory of persecution, colonial violence, and the erosion of dignity. While Hidalgo’s work frames resistance through metaphor and suffering, Leslie de CHAVEZ’s *The OGs* shifts the vantage point. Here, the gaze turns back toward the image itself, and toward the inherited symbols of power. Humor and mirroring become tools—not of mockery alone, but of reclamation, opening a space where the once-imposed image can be reinterpreted, and where dignity is reimagined on one’s own terms. Through this gesture, the work gently unsettles the authority of the icon, inviting it into a more human, even playful register.

4.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Installation view of *Leslie de CHAVEZ: Thy Will Be Done*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6.

5. Artist Introduction

“My practice has involved the creation of diverse art forms that scrutinize various issues in Philippine society such as history, colonialism, religion, imperialism, miseducation, power struggle, contemporary culture, politics, and social values. My process entails the resurfacing of historical templates, re-examining contemporary social discourse, and rediscovering introspection as methods to pin down the truth about the many realities we Filipinos experience. As an artist, I believe that responding through art to our continuous victimization from the chronic conditions of our society can be truly liberating.”

- Leslie de CHAVEZ



The artist Leslie de CHAVEZ.

Born in Manila in 1978, Leslie de CHAVEZ received his BFA in Painting from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in 1999 and is currently based in the Philippines.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in 2026 and 2016; Gajah Gallery Singapore (Singapore) in 2025; Silverlens (Singapore) in 2021 and 2013;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in 2018; and Liverpool Hope University (Liverpool, UK) in 2015.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Gajah Gallery Yogyakarta (Yogyakarta, Indonesia) in 2025;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 (Bratislava, Slovakia) in 2019;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in 2015;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in 2014; López Museum and Library (Manila, Philippines) in 2014; and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in 2013 and 2012. A two-time award winner (2014; 2010) of the Ateneo Art Awards for Visual Art. Leslie de CHAVEZ is also the director/founder of the artist-run initiative Project Space Pilipinas, in Lucban, Quezon.

7. Artist CV

Leslie de CHAVEZ

Born in 1978, Metro Manila, Philippines

Lives and works in Tayabas and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Education

1999 BFA Painting,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6 *Thy Will Be Done*,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A Kiss on the Ground (Halik sa Lupa), Gajah Gallery Manila, Manila, Philippines
- 2025 *A Kiss on the Ground (Halik sa Lupa)*, Gajah Gallery Singapore, Singapore
- 2024 *As Judas Receives the Bread from Christ, a Small Black Devil is Shown Entering His Mouth*, MO_Space Gallery, BGC Taguig City, Philippines
Placebo Paintings, MO_Space Gallery, BGC Taguig City, Philippines
- 2021 *A Lonely Picket in the Balcony*, Silverlens Galleries, Makati City, Philippines
- 2018 *Higa sa Hangin (Lying Down in Air)*, Finale Art File, Makati City, Philippines
The Allegory of the Cave,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 2017 *SaLang#1: Craft-Mine-Crap*,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 2016 *The Sleep of Reason*,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15 *Under the Influence*,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Unfolding Encounters, Cornerstone Gallery, Liverpool Hope University, Liverpool, UK
- 2013 *Nameless Presence*, Silverlens Galleries, Gillman's Barracks, Singapore
- 2011 *God Is Busy*,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10 *Buntong Hininga*, Silverlens Galleries,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 2008 *Banana Republic*, Avanthay Contemporary, Zurich, Switzerland
- 2007 *Red-eyed Brother*,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Leslie de Chavez, ARARIO GALLERY BEIJING, Beijing, China
- 2006 *Ichimaseyo (Do Not Forget Me)*, MMCA Goyang Residency, Goyang, Korea
- 2004 *San Ysidro Dismayado*, Pahiyas Festival,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 2003 *Bahid (Stain)*, Kulay Diwa Gallery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Paranaque, Metro Manila, Philippines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6 *Kumusta Po Kayo?, La Casa Encendida*, Madrid, Spain
Pangamot, Balay Sueno, Jaro, Iloilo City, Philippines
- 2025 *Zambulat 3*, Casa San Miguel, Zambales, Philippines
Confabulations: A Fantasy of the Real, Gajah Gallery, Manila Philippines
Bayluhanay Biennale: Sikulo at Sikleta, Eskinita Art Farm, Tanauan, Batangas, Philippines
Sentul Biennale: To Our Friends, A+ Works of Art, Kuala Lumpur, Malaysia
Usong,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Libang / Hibang: TalaAnyo, Gajah Gallery, Yogyakarta, Indonesia
- 2024 *Lunesan*,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Pagtilipon-Tipon, Orange Project, Bacolod City, Philippines
Possession - To Have & To Hold, Gajah Gallery, Jakarta, Indonesia

- 2023 *Papel sa Espasyo, Espasyo sa Papel*,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Embodied, The Drawing Room Contemporary Art Gallery, Makati City, Philippines
Portrait of a Portrait Show, MO_Space Gallery, BGC Taguig City, Philippines
In Excess, Gajah Gallery, Singapore
Island Time, Jane Lombard Gallery, New York, US
- 2022 *Orifice*,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The Riddle of Materials, Galleria Duemila, Manila, Philippines
Take My Hand and I'll Show You What Was and Will Be, Alba Gallery, Vienna, Austria
- 2021 *Hitherto IV: Lamentations*,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Philippines
After the Storm: Five Artists from the Philippines, Mizuma Gallery, Singapore
The Shelf Life of Being, Mono8 Gallery, San Juan, Metro Manila, Philippines
- 2020 *Quarantined Lives*,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Ready but Postponed or Cancelled, A+ Works of Art, Kuala Lumpur, Malaysia
Pacific Crossings, Triangulations Part III: Dispatches from Manila,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 2019 *Yellow Ambiguities*, Ateneo Art Galler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Far Away But Strangely Familiar, Danubiana Meulensteen Art Museum, Slovakia
+63 / +62, Silverlens Galleries,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 2018 *Once I had a Vision, The Left Hand of Darkness*, MO Space, BGC Taguig City, Philippines
SaLang, West Gallery, West Avenue,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 2017 *Voice of Asia*,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 2016 *Between the Streets and the Mountains: Four Artists from the Philippines*,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 2015 *PaperViews 15: Rapid Cycling*,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The Vexed Contempora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Design, St. Benilde, Manila
Asia Talk to Asia,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Korea
You Must Change Your Life, Equator Art Projects, Singapore
Unfolding Encounters, Cornerstone Gallery, Liverpool Hope University, Liverpool, UK
- 2014 *Pulse*,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Really?,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PaperViews 14: On Immanence,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Multiple Languages, Silverlens Galleries,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Complicated, Lopez Museum and Library, Pasig, Metro Manila, Philippines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Finale Art File, Metro Manila, Philippines
Concurrence, West Gallery,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 2013 *No Random Nonsense*, Boston Gallery,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Singapore Biennale 2013: If the World Changed,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 2012 *Panorama: Recent Art from Contemporary Asia*,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Artists With Arario 3, ARARIO GALLERY CHEONGDAM, Seoul, Korea
- 2011 *Rundgang 2011*, 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me, Leipzig, Germany
Self Camera: Repositioning Modern Self, Changwon Asian Art Festival, Korea
We Was There, Yuchengco Museum,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 2010 *Beacons of Archipelago*,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Nanjing Biennale, Nanjing Museum, Nanjing, China
Rainbow Asia,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Collection Show 2010,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Reflection, Bupyeong Art Center, Incheon, Korea
Artists With Arario,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09 *We Said Our Piece*,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Pasay, Metro Manila, Philippines
- 2008 *3rd Nanjing Triennial*, Nanjing, China

- 2007 *1st Pocheon Asia Biennale*, Pocheon, South, Korea
 2006 *Bikini in Winter*,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Korea
 2005 *Beppu Asia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Beppu Museum, Beppu, Japan
 2003 *Urbanisasyon*, Kulay Diwa Gallery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Paranaque, Metro Manila, Philippines
Buklod, Kulay Diwa Gallery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Paranaque, Metro Manila, Philippines
 2002 *Recent Works*, Kulay Diwa Gallery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Paranaque, Metro Manila, Philippines
Surface, Ayala Museum,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Selected Projects

- 2026 Curator, *Patihulog sa Ritmo ng Paubaya: Guenivere Decena Solo Exhibition*, Orange Project, AFP2026
 2025 Curator, *Libang/Hibang*, Gajah Gallery, Yogyakarta, Indonesia
 2024 Curator, *Pagtilipon-Tipon*, Orange Project, Bacolod City, Philippines
 2015 Director, *First Lucban Assembly: Pamumuhunan*,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2014 Curator, *PaperViews 14: On Immanence*,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Curator, *Multiple Languages*, Silverlens Galleries,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Curator,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 Finale Art File,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2013 Collaborator, Southeast Asian Art Group Exchange Residency, Kuala Lumpur, Malaysia; Yogyakarta, Indonesia; Metro Manila, Philippines
 2012 Collaborator, Southeast Asian Art Group Exchange Residency, Kuala Lumpur, Malaysia; Yogyakarta, Indonesia; Metro Manila, Philippines
 2011 Project Manager, *We Was There*, Yuchengco Museum,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2010 Collaborator, *Seoksu Art Project*, Supplement Space Stone & Water, Anyang, Korea
 Project Manager, *Reflections*, Bupyeong Art Center, Incheon, Korea
 2009 Project Manager, *Plastic Syndrome, Artist Exchange & Exhibition*, Art Space Plastic, Incheon, Korea
 Project Coordinator, *Artriangle*, Kuala Lumpur, Malaysia
 2008 Project Coordinator, *Tenggara: Recent Paintings from Malaysia, Indonesia, Philippines*, Liverpool, UK
 2007 Director, Project Space Pilipinas, Lucban,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2005 Co-curator, *First Dumaguete Open Biennial Terra Cotta Art Festival*, Philippines
 2004 Assistant curator, *In Memory of a Talisman: The Works of Santiago Bose*, Philippines
 2003 Curator, *Urbanisasyon*, Kulay Diwa Gallery of Philippine Contemporary Art, Paranaque, Metro Manila, Philippines

Awards & Residencies

- 2015 The Creative Campus (Residency Grant), Liverpool Hope University, Liverpool, UK
 2014 Fernando Zobel Prizes for Visual Art (Prize Winner), Ateneo Art Galler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2011 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me, Leipzig, Germany
 2010 Goethe Institute, Travel Grant (Art Forum 10), Berlin, Germany
 Ateneo Art Awards, "Shattering States" (Prize Winner), Ateneo Art Galler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2007 Neo-Emerging Artists Residency, Dangsang Studio, Seoul, Korea
 2005 IASK Goyang Art Studio, Asian Artists Fellowship Program, MMCA, Korea
 Beppu Asia Biennale of Contemporary Art 2005, Beppu Art Museum, Beppu, Japan
 2003 Metrobank Foundation Young Painters' Annual (2nd Prize), Metrobank Foundation,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1999 Oblecine: Film and Video Art Festival (Honorable Menti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UP President's Committee on Culture and Arts, 1st Film and Video Art Festival (3rd Priz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1998 UP President's Committee on Culture and Arts, Most Outstanding Student Artis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Gawad Chancellor, Student Achiever for National Competition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Metro Manila, Philippines

[Appendix 1]

"Blessed Art Thou" by Leslie de CHAVEZ

Blessed Art Thou

Leslie de CHAVEZ

In this lustral ground where the sweat of shadows collides,
April the third, past eleven, slowly slipping just after five,
Ten thousand and one souls groan in grief, endlessly wandering—
The ordinary persists, embraced by doubt and hushed longing.

Against the flushed mugginess of their dazed hearts and restless minds,
It seems the pledged solace was never a path they could readily find;
Despite reluctance and the tussle of crowded smiles they contrive,
You crawl across arid recollections not a drop of water can revive.

Within the piercing echo of walls from a temple wanting of voice,
Cling those souls who believe—emptied, shut, and without a choice;
Their thirst fondly caresses the fading glimmer of tears and love,
Beseeching the hereafter may carry a beat, a godsend from above.

The sorrow of this moment is wrapped in an elusive, clinging scent,
Pancit, toys, cellphones, balloons, and petitions in their hands are meant;
Brimming with desolation, denied in the calvary of deaf laughter,
Poison awaits upon the concrete field where stray crows muster.

Heavy is the hundred-year light weight upon your twisted shoulders;
Beneath the sun, a pale shadow on your hide inking for mercy forever;
Holding your movements restrained, your offerings forever not enough,
Begging for sacrifices whose equal dares stretch to the divine cuff.

No longer within reach is the depth of darkness in your weary eyes,
As a blind spirit teeters along crossroads, with oil-slicked brow that pries;
Like you, an inebriated scent stains alabaster garments for Holy Friday,
Each step is viscid, toward the nub of your original ash along the way.